

## 예민한장을 다독이는

여름철 장 건강을 위해 식사습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통해 장의 기능을 원활하도록 돋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요가로장을 다스려보자.

챙기 자세



누운 자세에서 숨을 들이쉬며 다리를 들어 올린다. 배에 힘을 주고 다리와 엉덩이를 들어 올려 발을 위로 옮겨준다. 발끝이 최대한 바닥에 닿도록 한다. 완성 자세에서는 다리를 모으고, 무게중심이 어깨에 있도록 한다.

바람빼기 자세



천장을 향해 누워 호흡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오른 다리를 구부려 양팔로 감싸 쥐고 가슴방향으로 끌어올린다.

이치 자세



천장을 향해 누워서 어깨너비 정도 두 발을 벌린 다음 무릎을 구부려 세워준다. 양손은 엉덩이 옆에 놓고 호흡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위로 들어준다.

반달 자세



몸에 힘을 빼고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고 선다. 그런 다음 상체를 서서히 뒤로 젖힌다. 상체를 뒤로 젖힐 때 팔은 뻗어 하늘을 찌르고 엉덩이는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 **MEDI**CHECK